

지금, 기억하고 남겨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남겨진 사물과 기억을 통해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이정기 작가의 석고 캐스트 작품.



남도의 땅과 인간의 삶을 표현한 박문중 작가의 설치, 회화 작품.



노순택 작 '흑산 연작'

이강하미술관 특별기획전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 리뷰

노순택·박문중·이정기 참여, 오월 기억·공동체 가치 되새겨 우리 시대 삶의 풍경 속 마주한 각기 다른 기억·연대의 기록

검게 솟은 바위섬과 겹겹이 이어지는 능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새긴 듯한 암석의 결이 화면을 채운다. 담양의 붉은 흙과 삶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을 비롯해 미래의 유물처럼 구현된 인물 조각들도 관람객과 마주한다. 서로 다른 풍경과 매체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작품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이강하미술관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는 8월2일까지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

은 창작, 미래의 유산'은 오늘의 예술이 어떻게 오월의 기억을 이어가는지 보여준다.

전시는 5·18을 현재의 삶과 예술 속에서 다시 읽어내며, 그것이 미래 세대에 어떤 문화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지 탐색한다.

참여 작가는 노순택, 박문중, 이정기 세 명이다. 각기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사진과 회화, 조각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상처,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낸다.

노순택의 '흑산' 연작은 전남 신안 흑산도의

자연과 삶을 기록한 흑백 사진 작업이다. 사진 속 바위섬은 오랜 풍파를 견뎌온 듯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작가는 흑산의 거친 돌섬들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주름이 깊어 있다고 말한다. 전시장에는 이 사진 일부를 바탕으로 제작한 촉각 작품도 함께 설치돼 시각장애인 관람객들도 작품을 손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중 작가의 공간에서는 남도의 흙냄새가 느껴진다. 작가는 오랫동안 담양에서 생활하며 농사를 짓듯 그림을 그려왔다. 실제 눈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설치된 '그림농사' 연작은 땅과 삶의 시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었다. 최근 태어난 손자를 바라보며 그린 '연화동자'에서는 한 생명을 향한 애정과 기대가 오롯이 전해진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렸던 그림이 어느덧 자신의 자화상이 됐다는 작가의 이야기는 작품에

또 다른 시간을 더한다.

이정기 작가의 작업은 존재와 부재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현재인'과 '부재-앞에 서서'는 누군가 떠난 뒤 남겨진 사물과 기억이 어떻게 그리움과 위로가 되는지 보여준다. 가족과 친구의 얼굴은 마치 먼 미래에 발견된 고대 유물처럼 구현됐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언젠가 또 다른 시대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전시는 작품뿐 아니라 관람 방식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수어 해설 영상과 음성 해설이 마련됐고, 작품 설명은 큰 글씨로 제작됐다. 일부 작품은 촉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로 꾸몄다.

전시 기획의 출발점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첫 희생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김경철씨에 대한

기억이 자리한다. 그의 이야기는 곧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전시는 오월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삶의 풍경과 존재의 흔적을 통해 그 의미를 환기한다. 대신 흑산도의 바다와 섬, 담양의 흙과 사람, 누군가의 부재가 남긴 흔적들이 오월의 가치와 자연스레 맞닿는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기억과 연대라는 의미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풍경 속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이선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는 예술이 역사와 사회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했다"며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문화적 언어와 지형을 만들어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 오후 4시에는 전시와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색이 모서리에서 다시 몸을 얻을 때

가운의 캔버스상색



사비나미술관 개인전을 준비하며 나는 색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몸을 얻는지 다시 묻고 있다.

산문은 감정이 처음 문장이 되는 자리이고, 회화는 그 문장이 색과 물성으로 움직이는 순간이다. 작업노트는 그 움직임을 사유의 층위로 가라앉히는 일이며, 전시와 기고는 이 과정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다.

'색으로 태어나다'의 '유기적 삼각형 배치도면'은 천장 아래 90도로 만나는 벽 모서리에서 출발한다. 165점의 캔버스는 좌우 벽면에 놓이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정확한 삼각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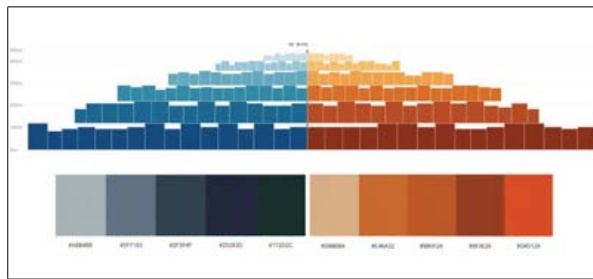
크고 작은 화면들이 서로 기대고 밀려나며, 어느 순간 삼각형처럼 보이게 되는 색의 호흡이다. 화면 사이의 틈과 어긋남은 겹겹이 아니라 색이 숨 쉬는 자리다.

그 앞의 파티션에는 좌우 색채 레이어링을 5색 가로형 색상집으로 제시한다.

좌측의 차가운 다섯 색은 '침잠과 기억의 층'이다. 청회색에서 녹색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마음 안쪽으로 가라앉는 시간과 닮았다.

우측의 따뜻한 다섯 색은 '발화와 생성의 층'이다. 살구빛 오렌지에서 심홍 오렌지로 변하는 흐름은 안쪽에 머물던 감정이 빛을 만나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담는다.

색상집은 단순한 견본이 아니라 설치의 감정 구조를 압축한 작은 약본이다. 차가운 색이 마음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힘이라면, 따뜻한 색



'색으로 태어나다-유기적 삼각형 배치도면'

은 그 바닥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힘이다. 두 흐름이 만나는 곳이 바로 모서리다. 그곳에서 색은 나뉘기보다 서로를 비추고, 기억은 생성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꾼다.

'모서리에서 색이 태어나는 순간'은 165점의 설치작 두 점의 회화로 응축된 독립 작품이다. 설치작 공간 속에서 색의 몸을 펼쳤다면, 두 회화는 그 숨을 화면 안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나는 색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색이 태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색은 벽과 빛, 기억과 생성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몸을 얻는다. <대인동에서화가강음>

'광장'...서정가곡으로 물들다

'113회 광장음악회'...6일 남구 노대동 불빛호수공원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제113회 광장음악회가 오는 6일 오후 6시30분 남구 노대동 불빛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의 서정가곡'을 주제로 마련됐다. 광장음악회는 공원과 광장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펼쳐지는 열린 음악회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문 클래식 음악인들에게 상설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공연은 동요 메들리로 문을 연다. 관객들은 '반달', '따오기', '오빠생각',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며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이어 바리톤 정찬경이 '가고파', '대관령'을 선보이며, 소프라노 신은선은 '학'과 '꽃구름 속에'를 들려준다. 메조소프라노 임지현은 '진달래꽃'과 '뭇잎이'를, 소프라노 장마리아는



'내 맘의 강물'과 '수선화'를 노래한다.

또 테너 신연석은 '박연폭포'와 '그리움'을, 소프라노 이환희는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의 대미는 동요 '과수원길'을 다 함께 부르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